



##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A Study on the Investiture of the Royal Women in the Early Part of the Late Period of Shilla Dynasty

---

저자 (Authors)	이현주 Lee, Hyun-ju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 (42)</a> , 2018.4, 363-399(37 pages) <a href="#">SILLASAHAKPO (42)</a> , 2018.4, 363-399(3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022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0220</a>
APA Style	이현주 (2018).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신라사학보(42), 363-3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5 10:3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이현주\*

I. 머리말	III. 당의 신라왕대비 책봉과 의미
II. 왕실여성의 책봉과 위상 변화	IV.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신라 하대초기(선덕왕~현안왕), 그 중에서도 선덕왕~흥덕왕에 이르는 시기는 원성왕계의 독점적인 왕위계승이 이루어진 동시에 원성왕계 사이의 왕위쟁탈전도 격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왕실여성, 그 중에서도 왕의 母와 妻의 칭호와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성왕은 즉위 직후에 그의 직계 4조와 그의 모인 박씨를 추봉하고, 왕태자를 추봉하였다. 또한 五廟制를 개정하였다. 원성왕은 부계적 정통성을 세움으로써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성왕과 김원량-김신술 세력은 母와 妻를 매개로 한 친인척 관계로, 원성왕의 즉위를 지지한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왕의 어머니와 부인에 대한 기록이 과편화되

\* 아주대학교 강사

대표논저 :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95, 2015 ;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 ; <신라 중고기 왕실여성과 불교-영흥사의 창건과 도유나랑을 중심으로-> 《사립》 60, 2017 ;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증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6, 2017

거나 멸실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성왕이 부계적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하대왕후의 위상과도 연관되었다. 하대 초기의 왕후 책봉은 태자 책봉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正妃가 낳은 태자에게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 하대의 왕후책봉과 위상은 차기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연동된 사안이었다.

또한 신라 하대초기에는 당이 신라의 왕실여성을 책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의 책봉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였다. 당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군주에게 爵號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주변국과의 왕과 신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의 책봉을 통해 왕권의 정통성 내지는 왕권을 유지하고자 의도하였다. 당의 책봉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이 신라의 왕뿐만 아니라 왕모 및 왕비에게 빈번하게 책봉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당으로부터 신라왕의 어머니까지 책봉을 받았던 것은 소성왕,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에 한정된다. 원성왕과 애장왕은 五廟制를 직계 4祖로 개편하여 그를 통해 부계의 수직적 계통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성왕의 손자인 소성왕과 헌덕왕, 흥덕왕은 어머니가 동일하고, 소성왕의 아들인 애장왕만 어머니가 다르다. 헌덕왕과 흥덕왕은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으로 즉위한 이들이다. 즉 소성왕,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은 모두 원성왕계로 父系적 지지기반이 동일하다. 따라서 헌덕왕과 흥덕왕은 왕권의 정당성을 위하여 부계적 정통성은 물론 당의 책봉을 받은 왕모의 위상 역시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대 초기의 원성왕계는 왕위의 정당성이 부족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父母를 追封하여 왕실 직계의 위상을 높여서 부계적 정통성을 내세웠고, 외부적으로는 당의 王母 책봉을 받음으로써 왕권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원성왕, 애장왕, 오묘제, 책봉, 왕후, 태후

## I. 머리말

신라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다. 하대는 신라의 전 시기 중에 가장 치열한 왕위계승분쟁이 일어난 시기였다.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하대 정치사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원성왕대를 하대의 권력구조를 특징짓는 왕실 친족집단원에 의한 권력 장악, 권력 집중의 한 전형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로 주목하였다.<sup>1)</sup> 하대의 첫 왕인 선덕왕대는 중대에서 하대로 이양하는 과도기였고, 원성왕이 하대의 실질적인 시조였다고 보았던 것이다.<sup>2)</sup> 이는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이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서 이행되는 것으로 파악한 관점이다.<sup>3)</sup>

- 
- 1)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52쪽.
  - 2) 末松保和, <新羅三代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1쪽; 申澐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131~132쪽;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124쪽.
  - 3) 혜공왕대를 파악하는 정치사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혜공왕대를 전환기로 보는 것이다. 즉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혜공왕대가 중대 전제정치에서 하대 귀족연립정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이기백,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김수태, 앞의 책, 1996). 다른 하나는 혜공왕대를 전환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이영호, <신라 혜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신라 혜공왕대 12년 관호복구의 의미> 《대구사학》 39, 1991; <신라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 《신라 중대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전자에 따르면 선덕왕대는 중대에서 하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선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경신과 김주원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sup>4)</sup> 이후에 원성왕계가 왕위를 독점하였는데, 왕실 가계가 分枝化됨에 따라 仁謙系와 禮英系 및 均貞系로 나뉘었다.<sup>5)</sup> 이처럼 하대에는 왕계를 중심으로 가계의 분지화가 이루어졌고, 각 가계별로 정치 세력화하였기 때문에<sup>6)</sup>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중대와 하대의 연속성을 지적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7)</sup> 또한 하대 초기에 나타난 왕위계승분쟁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sup>8)</sup>

- 
- 4) 李明植, <신라 하대 김주원계의 정치적 입장> 《대구사학》26, 1984; 金貞淑, <金周元世系の成立과 그變遷> 《白山學報》28, 1984; 金昌謙, <新羅 元聖왕의 卽位와 金周元系の 動向>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일서각, 1995.
- 5) 吳星, <新羅 元聖王系の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尹炳喜, <신라 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역사학보》 96, 1982;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한국사연구》 39, 1982; 姜聲媛, <新羅時代 反逆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43, 1983;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金昌謙, 《新羅下代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 6) 李基白, 앞의 책, 1974, 181·186·189·190쪽.
- 7) 濱田耕策, <新羅の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確立過程と性格> 《朝鮮學報》 1761·77, 2000, 247쪽; 권영오, 《新羅下代政治史研究》, 혜안, 2011.
- 8) 신라 하대를 시기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대를 정치변동에 따라 2시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井上秀雄은 왕권쟁탈기(선덕왕~정강왕)과 지방세력의 자립기(진성왕~경순왕)으로 구분하였고(<新羅政治體制의變遷過程>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427쪽), 후보돈은 헌덕왕 14년(822)의 김현창의 난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통일신라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3, 한길사, 1994, 332쪽). 반면 3시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李佑成은 초기(선덕왕~신무왕)·중기(문성왕~헌강왕·정강왕)·말기(진성왕~경순왕)까지로 설정하기도 하고(<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179~180쪽), 권영오는 초기(선덕왕~민에

하대의 왕위계승분쟁은 하대 전 시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하대 초기의 선덕왕, 헌덕왕,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은 선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었다. 그 중에서도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는 836년부터 839년까지는 왕위쟁탈전이 특히 격심하였다. 이들은 모두 원성왕계 후손으로, 이러한 왕위계승분쟁의 시발점은 원성왕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대 초기의 왕위계승 양상과 왕실일원의 존재양상을 알기 위하여 하대 초기, 그 중에서도 원성왕대부터 흥덕왕에 이르는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대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왕실여성, 그 중에서도 왕의 母와 妻의 칭호와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라 하대에는 대내외적으로 왕실여성에 대한 책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덕왕부터 흥덕왕대까지의 왕실여성의 책봉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원성왕대 왕실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왕후 책봉의 조건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대초기에 신라 왕실여성, 그 중에서 王母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정황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대초기의 왕위계승과 정치 상황 하에서 왕실여성의 지위가 연동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왕)·중기(신무왕~진성왕2년)·말기(진성왕3년~경순왕)까지로 보아, 각각 왕위계승 분쟁기-하대 정국 안정기-신라의 쇠퇴기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앞의 책, 2011, 180쪽). 또한 김창겸은 하대 전 시기를 왕통과 정치세력의 변화를 근거로 4시기로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I 기인 선덕왕~흥덕왕대는 '원성왕과 인계계기'로, II 기인 희강왕~현안왕대는 '원성왕계 내의 예영계기'로, III 기인 경문왕~효공왕대는 '경문왕계기'로, IV 기인 신덕왕~경순왕대는 '박씨왕계와 경순왕기'로 파악하였다(앞의 책, 2003, 336~340쪽). 본 논문에서는 하대를 왕계와 정치적 특성에 따라 선덕왕부터 현안왕까지를 초기, 경문왕부터 효공왕까지를 중기, 박씨왕대인 신덕왕부터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까지를 말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 II. 왕실여성의 책봉과 위상 변화

### 1. 원성왕의 부계적 정통성 강조와 왕실여성

신라의 하대는 780년에 혜공왕이 김양상과 김경신에 의해 피살되고,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되었다. 선덕왕과 원성왕은 왕위계승과정에서父子간의 계승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이 개입된 상황이었기에 왕위의 정통성이 부족하였다. 선덕왕과 원성왕이 즉위한 이후에 왕권의 정당성과 왕위의 정통성을 천명하기 위해 시행했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선덕왕과 원성왕이 부모를 追封하고, 五廟制를 시행한 것과 관련된 사료이다.

- A-1) 宣德王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良相이다. 奈勿王의 10대손으로, 아버지는 海滄 孝芳이다. 어머니는 김씨 四炤夫人으로 선덕왕의 딸이다. 왕비는 具足夫人으로 角干 良品의 딸이다. 또는 阿滄 義恭의 딸이라고도 하였다. 아버지를 開聖大王으로 추봉하고 어머니 김씨를 貞懿太后로 추존했으며, 처를 왕비로 삼았다.<sup>9)</sup>
- 2) 2월에 追封하여 고조부인 大阿滄 法宣을 玄聖大王이라 하고, 증조부인 伊滄 義寬을 神英大王이라 하고, 조부인 伊滄 魏文을 興平大王이라 하고, 아버지 一吉滄 孝讓을 明德大王이라 하였다. 어머니 박씨를 昭文太后라 하였으며, 아들 仁謙을 왕태자로 삼았다.<sup>10)</sup>
- 3) 聖德大王과 開聖大王의 두 묘를 달고 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과 조부 興平大王·아버지 明德大王을 五廟로 하였다.<sup>11)</sup>

A-1)은 선덕왕 즉위조이다. 선덕왕은 즉위 초기에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父를 추봉하고, 母와 妻를 높여서 각각 太后와 王后

9)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선덕왕 즉위조.

1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즉위조.

1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즉위조.

로 삼았다. A-2)는 원성왕 즉위조이다. 원성왕도 즉위 직후에 직계 4 祖를 추봉하고, 왕모인 박씨를 소문태후로 추봉하였으며 왕태자를 책봉하였다. A-3)은 원성왕대 오묘제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혜공왕은 시조대왕인 미추왕, 태종대왕, 문무대왕과 親廟인 성덕대왕과 경덕대왕을 더하여 五廟로 하였다.<sup>12)</sup> A-3)은 혜공왕의 오묘제를 선덕왕이 개정하였고, 이후에 원성왕이 개정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선덕왕은 五廟의 神位를 직계 2祖로 親廟로 삼는 대신에 혜공왕대의 五廟에서 경덕대왕 대신 親父인 개성대왕의 신위만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혜공왕의 祖父가 聖德王인데, 聖德王은 宣德王의 外祖父이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처럼 선덕왕이 外祖父인 성덕대왕과 親父인 개성대왕의 신위를 五廟에 모신 이유에 대해 즉위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무열왕계인 김주원 세력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sup>14)</sup> 그보다는 선덕왕이 즉위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무마하기 위해 선왕인 혜공왕과의 연계성과 외조부인 성덕왕의 위상이 필요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선덕왕은 母를 매개로 무열왕계로서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5)</sup> 이처럼 宣德王은 父母를 각각 大王과 太后로 높이고, 五廟制에서 父와 外祖父인 聖德王을 제사지냄으로써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12) 《三國史記》 권32, 雜志1 祭祀.

1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宣德王 즉위조.

14) 채미하,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2000 ; 앞의 책 재수록, 2008, 198~199쪽.

15)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70~71쪽 ;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95쪽 ; 申滢植, <新羅史의 時代區分－三國史記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18, 1977, 27쪽.

16)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

선덕왕이 죽은 후에 김경신과 김주원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삼국유사》에서 김주원은 처음에 上宰였고, 김경신은 二宰라고 하였다.<sup>17)</sup> 또한 김주원의 가문은 무열왕계로서 대대로 시중과 상대등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sup>18)</sup> 이로 보아 김경신이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왕위계승의 서열이 김주원보다 낮았고, 이는 父系の 정통성이 그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元聖王 元年(785)에 五廟制를 直系 4祖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후 애장왕대에 원성왕을 중심으로 五廟制의 개편으로 이어졌다.<sup>19)</sup>

원성왕의 父系の 관등으로 보아 中代에 진골귀족임에는 틀림없으나, 中代의 정국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 같다.<sup>20)</sup> 따라서 오묘제를 개정하기 이전에 A-2)의 부계의 추봉 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원성왕은 이어서 왕태자를 책봉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계통성을 천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덕왕과 원성왕은 즉위 직후에 부모를 각각 대왕과 태후로

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 437~440쪽.

17) 《三國遺事》卷2, 紀異, 元聖大王.

18) 김정숙, 앞의 논문, 1984, 150~158쪽; 金敬愛,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王室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41, 2006, 274~275쪽.

19) 하대에 특히 원성왕대와 애장왕대에 五廟制가 직계 4祖의 神位를 모시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원성왕계의 계보 의식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김주원 세력에 대한 원성왕계의 강화, 즉 원성왕계라는 연대의식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214~216쪽).

20) 김경신의 가문 역시 중대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유력 진골귀족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李基東, 앞의 책, 1984, 151쪽; 金昌謙, 앞의 책, 2003, 32쪽). 반면 김경신의 아버지 효양이 일길찬의 관등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볼 중대에 김경신 가문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대고구려전쟁에서 그의 曾祖父인 의관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이유로 면직되면서부터였을 것으로 보았다(박혜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167쪽).

추봉하였다. 이는 왕권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선덕왕은 그의 부모를 추존하고, 동시에 그의 처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반면 원성왕의 처인 왕비에 대한 책봉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원성왕의 왕모와 왕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 B-1) 어머니는 박씨 繼鳥夫人이고 비는 김씨이니 神述角干의 딸이다.  
 (중략) 어머니인 박씨를 昭文太后로 추봉하였다.<sup>21)</sup>
- 2) 어머니는 仁△ 또는 知鳥夫人이고 시호는 昭文王后이며 昌近伊己의 딸이다. 왕비는 淑貞夫人으로, 神述 角干의 딸이다.<sup>22)</sup>
- 3) 두 탑은 天寶 17년 무술에 세우시니라.  
 남자형제와 두 여자형제 모두 셋이 업으로 이루시니라.  
 남자형제는 零妙寺의 言寂법사이며,  
 큰누이는 昭文皇太后님이시며,  
 작은누이는 敬信太王의 姨母이시다.<sup>23)</sup>
- 4) 금성의 남쪽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산기슭에 崇福寺라는 절이 있사 오니 이 절은 곧 先大王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신 첫 해에 烈祖 元聖 大王의 능을 모시고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옛 절이 생긴 기원을 상고하고 새 절이 이룩된 것을 살펴보건대, 옛날 파진찬 金元良은 昭文王后의 외숙이요 肅貞王后의 외조부로서, 몸은 귀공자였으나 마음은 참다운 옛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謝安이 東山에서 마음껏 즐기듯이 歌堂과 舞館을 어엿하게 짓더니 나중에는 慧遠이 여럿이 함께 西方淨土에 가기를 기약한 것처럼 그를 회사하여 佛殿과 經臺로 삼아, 예전에 피리 금슬 소리이던 것이 오늘날 金鍾 玉磬 소리가 되었으니 시절이 변함에 따라 고쳐진 것으로 俗界를 벗어난 인연이었습니다. 절의 의지가 되는 것은 바위의 고니 모양인데 그로 인해 절 이름을 삼았습니다.<sup>24)</sup>

2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즉위조.

22) 《三國遺事》 卷1, 王曆1 원성왕.

23)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葛項寺石塔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1992.

24) 崔英成, <大崇福寺碑銘并序> 《註解崔致遠全集》 1, 亞細亞文化社, 1998.

원성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B-1)의 《신라본기》에서는 박씨인 계오부인인데, 소문태후로 추봉하였다고 하고, B-2)의 《삼국유사》에서는 지오부인인데, 시호가 소문왕후이고, 창근이기의 딸이라고 하였다. 또한 B-3)은 <갈항사석탑기>인데, 경신태왕, 즉 원성왕의 어머니인 조문황태후가 나온다. B-4)는 <대승복사비명>인데, 그에 따르면 소문태후의 외숙이자 숙정왕후의 외조부인 김원량이 곡사를 세웠고, 이를 후에 원성왕을 추복하는 승복사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B-1)과 2)는 ‘昭文’이라 하였고, B-3)은 照文皇太后, B-4)의 炤文王后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문’의 同音異寫로, 모두 동일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즉 원성왕의 모는 이간 박창근의 딸인 계오부인(또는 지오부인)으로, 소문왕후(태후)임을 알 수 있다.

원성왕의 어머니인 소문태후는 하대 초기의 왕실여성 중 유일한 박씨이다. 소문태후의父는 昌近 伊己인데, 伊己는 伊干의 잘못된 표기로, 伊滄이다.<sup>25)</sup> 기왕의 연구에서 원성왕의 지지세력의 하나로서 모계인 박씨세력을 주목하기도 하였다.<sup>26)</sup> 반면 김경신이 미약한 진골귀족이었던 부계와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박씨세력이었던 母系로 인해 중대 말 혜공왕대 초의 정국에서 소외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sup>27)</sup> 소문태후의父가 伊滄의 관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원성왕의 모계인 소문태후세력의 정치적 위상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4)의 소문태후의 외숙이자 숙정왕후의 외조부인 김원량이 주목된다. B-4)의 숙정왕후는 B-2)의 김신술의 딸이자 원성왕의 왕비인 숙정부인이다. 김원량의 조카는 원성왕의 모였고, 손녀는 원성왕

25) 장일규, <《삼국유사》 왕력판·기이편의 신라 하대 기사와 하대상> 《新羅史學報》30, 2014, 174쪽.

26) 김수태, 앞의 책, 1996, 145쪽 ; 김경애, 앞의 논문, 2006, 286~287쪽.

27) 박해현, 앞의 책, 2003, 167쪽.

의 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원량과 원성왕 간의 2대에 걸친 혼인은 원성왕 즉위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원성왕의 왕모인 소문태후의 부는 박창근이고, 모는 김씨로, 김원량의 누이였다. B-4)에서 소문태후가 그의 아들인 김경신의 처로 조카인 숙정왕후를 맞아들인 것으로 보아 이들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성왕의 외가와 처가이기 이전에 소문태후, 숙정왕후, 김원량은 가까운 혈연 관계였던 것이다.<sup>28)</sup> 김원량과 누이, 누이의 딸인 소문태후, 그리고 김원량의 딸과 김신술, 외손녀인 숙정왕후는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소문태후의 아들이자 숙정왕후의 배우자인 김경신과 친인척 관계였다. 이들이 김경신이 김주원과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을 때 그의 지지세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B-3)의 <갈항사석탑기>를 통해 소문태후와 그의 남녀형제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특히 남자형제는 영묘사의 언적법사인데, 영묘사는 중대 이래로 成典을 설치하여 관리하던 사찰이다. 또한 B-4)는 김원량이 세운 곡사의 유래를 설명하는데, 이 곡사가 후에 원성대왕의 추복사찰인 숭복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소문태후가 박씨이기는 하지만 정치·경제적 위상이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애장왕 9년(808)의 기사가 주목된다. 당으로부터 소성왕의 모인 申氏의 책봉을 받았다. 이 기사의 세주에 申氏는 金神述의 딸이라고 부연되어 있다.<sup>29)</sup> 소성왕의 모는 김씨인 성목태후이다. 김씨가 아닌 申씨라고 한 것은 당에서 책봉을 받는 과

28) 김창겸은 원성왕과 김원량이 母와 妃를 통하여 이중으로 맺어진 인척관계였음을 주목하였다. 파친한 김원량의 존재로 보아 원성왕의 母系와 妃系는 중대 무열왕계의 왕가와 가까운 관계로 정치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였을 것으로 상정하였다(2003, 앞의 책, 29~34쪽).

2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9년.

정에서 신라측에서 동성혼인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씨로 알렸기 때문이다.<sup>30)</sup> 신라는 당에게 왕비의 성이 왕과 동일한 김씨의 성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왕비의 아버지의 이름의 첫 글자를 성씨로 알려 주었다. 그래서 소성왕의 모는 신씨로, 소성왕의 처는 숙씨로 알렸고, 그에 따른 당의 책봉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소성왕의 모가 김신술의 딸이라는 세주의 기록은 신빙성이 높다. B-2)에서 원성왕의 妻의 父 역시 角干 金神述이었다. 인겸의 처, 즉 준옹의 모 역시 김신술의 딸이었던 것이다.

원성왕이 그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角干 金神述의 딸과 혼인하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김신술은 진골귀족으로서 角干의 지위에 이를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원성왕이 金神述과의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김신술의 딸을 태자인 仁謙의 妻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김원량-김신술은 원성왕의 모인 소문태후, 처인 숙정왕후, 그리고 태자였던 인겸의 처인 성목태후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원성왕의 즉위과정에 일조한 지지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왕의 모와 처에 대한 기록이 과편화되거나 멸실된 이유는 원성왕계의 부계적 정통성 강조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 2. 태자와 왕후 책봉의 연동성

원성왕이 元年에 직계 4조를 중심으로 五廟制를 개편하고, 이어 아들 仁謙을 왕태자로 삼았던 것은 부계를 중심으로 수직적 계통성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원성왕 7년(791)에 왕태자인 인겸

30) 李丙燾,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171쪽 주 3)

이 죽자,<sup>31)</sup> 원성왕 8년(792)에 義英을 태자로 봉하였고,<sup>32)</sup> 원성왕 10년(794)에 의영이 죽자,<sup>33)</sup> 원성왕 11년(795)에 인검의 아들인 俊崑을 태자로 책봉하였다.<sup>34)</sup>

또한 891년에 왕태자 인검이 죽자 그의 아들인 준옹을 원성왕이 궁중에서 키웠다.<sup>35)</sup> 이는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왕위계승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원성왕은 부계적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왕위의 정당성과 왕권의 안정성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성왕이 죽자 준옹이 소성왕으로 즉위하였다. 다음은 소성왕과 헌덕왕과 흥덕왕의 왕모와 왕비에 관한 사료이다.

C-1) 어머니는 김씨이며, 비는 김씨 桂花夫人으로 대아찬 叔明의 딸이다.<sup>36)</sup>

2) 어머니는 聖穆太后이고, 비는 桂花王后로 夙明公의 딸이다.<sup>37)</sup>

3) 소성왕의 同母弟이다. (중략) 비는 貴勝夫人이니 禮英 각각의 딸이다.

4) 소성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다. 왕비는 貴勝娘으로, 시호는 皇娥王后이며, 忠恭 角干의 딸이다.<sup>38)</sup>

5) 헌덕왕의 同母弟이다. 겨울 12월에 왕비 章和夫人이 죽으니, 追封하여 定穆王后라 하였다.<sup>39)</sup>

6) 헌덕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다. 왕비는 昌花夫人이며, 시호는 定穆王后이고, 昭聖의 딸이다.<sup>40)</sup>

3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7년.

32)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8년.

3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10년.

34)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11년.

3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즉위조.

36) 《三國史記》 卷10, 소성왕 즉위조.

37) 《三國遺事》 卷1, 王曆1 소성왕.

38) 《三國遺事》 卷1, 王曆1 헌덕왕

3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흥덕왕 즉위조

40) 《三國遺事》 卷1, 王曆1 흥덕왕

- 7) 여름 5월에 아버지 惠忠太子를 惠忠大王으로 추봉하였다. (중략) 8월에 어머니 김씨를 聖穆太后로 추봉하였다.<sup>41)</sup>
- 8) 貞元 18년(802) 10월 16일에 동지를 데리고 여기에 건물을 세웠다. 산신령도 妙德의 이름을 돕고 땅은 청량한 형세를 자리잡아 주었다. 五髻를 나누어 꾸며서 다투어 一毛를 뽑았다. 이 때에 聖穆王太后께서 우리나라에 어머니로 군림하시어 불교도들을 아들처럼 육성하셨다. 소문을 듣고 공경하며 기뻐하시어 날짜를 정하여 부처님께 귀의하시고, 좋은 음식을 내리시고 예물까지 곁들여 주셨다.<sup>42)</sup>

C-1)과 2)는 소성왕의 왕모와 왕비에 관한 내용이다. C-3)와 4)에서 헌덕왕은 소성왕의 동모제라고 하였고, C-5)과 6)에서 흥덕왕은 헌덕왕의 동모제라고 하였다. C-1)과 2)에 따르면, 소성왕의 어머니는 김씨 성목태후이다. 따라서 소성왕과 헌덕왕, 흥덕왕은 인검과 성목태후 소생의 형제들인 것이다.

그리고 C-7)과 8)은 성목태후에 관한 사료이다. C-7)은 소성왕 원년(799) 5월에 죽은 아버지 惠忠太子를 惠忠大王으로 추봉하였고, 8월에 어머니 김씨를 聖穆太后로 추봉하였다는 기록이다. C-8)은 802년 해인사를 창건할 때에 성목왕태후가 해인사가 창건되는 것을 기뻐하며 불도에 귀의할 것을 서원하고, 폐백예불을 후원하였다는 기록이다. 위의 사료에서 성목태후는 C-7)에서는 추봉이라고 하여 709년 당시 이미 죽은 것으로 이해되고, C-8)에서는 해인사를 창건하던 802년 당시 생존하여 활동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순응이 생전의 성목태후와 인연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4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즉위조

42) 《東文選》 卷64, 記,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越貞元十八年良月既望. 牽率同志. 卜築於斯. 山靈鈞妙德之名. 地體印清涼之勢. 分裝五髻. 競拔一毛. 于時聖穆王太后. 母儀四夷. 子育三學. 聞風敬悅. 誓日歸依. 捨以嘉蔬. 副之束帛. 是乃自天獲祐. 實惟得地成因. 然屬生徒方霧. 擁岳扉. 耆德遽露晞林宇. 利貞禪伯. 踵武興功. 依乎中庸”

성목태후의 사후에 해인사를 창건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43)</sup> 반면 성목태후가 해인사 창건 당시에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44)</sup> 여기서 C-7)의 소성왕이 부모를 각각 5월과 8월에 추봉하였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즉위 직후에 父母를 추봉하는 것은 왕위의 정통성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성왕이 부모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추봉하였는데, 이로 보아 소성왕의 부인 혜충태자와는 달리 모인 성목태후는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애장왕대 왕실여성에 관한 사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D-1) 소성왕의 태자로 어머니는 김씨 桂花夫人이다.<sup>45)</sup>

2) 어머니는 桂花王后이다.<sup>46)</sup>

3) 소성왕 2년(800), 봄 정월에 왕비 김씨를 봉하여 왕후로 삼고, 忠芬을 시중으로 삼았다.<sup>47)</sup>

4) 애장왕 3년(802), 여름 4월에 아찬 金宙碧의 딸을 후궁으로 삼았다.<sup>48)</sup>

5) 애장왕 6년(805), ①봄 정월에 어머니 김씨를 봉하여 大王后로 삼고, 왕비 박씨를 봉하여 王后로 삼았다. ②이 해에 德宗이 돌아가니, 順宗이 兵部郎中 兼 御史大夫 元季方을 보내 喪을 알렸다. 또 왕을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雞林州刺史 兼 持節充寧海軍使 上柱國 新羅王으로 삼고, 그 어머니 叔氏를 책봉하여 大妃로 삼았으며, <王母의 아버지인 叔明은 나물왕

43) 최원식, <신라 하대의 해인사와 화엄종> 《한국사연구》 49, 1985, 6~7쪽 ; 김복순,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1990, 105~106쪽 ;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339~341쪽.

44) 김진국, <신라하대 해인사와 왕실>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쪽 ; 김상현, <9세기 후반 해인사와 신라왕실의 후원> 《신라문화》 28, 2006, 240쪽 ; 정선용, <신라 애장왕대 해인사 창건과 왕실세력의 동향>, 한국고대담구학회 제66차 월례발표회 발표문, 2017.12, 10쪽.

4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즉위조.

46) 《三國遺事》 卷1, 王曆1 애장왕.

4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2년.

4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3년.

의 13세손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성은 김씨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叔氏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인 박씨를 책봉하여 妃로 삼았다.<sup>49)</sup>

D-1)~3)은 소성왕의 처이자, 애장왕의 모인 계화부인에 대한 기록이다. 소성왕은 원성왕의 손자이고, 애장왕은 소성왕의 아들이다. D-5)의 ①은 애장왕이 계화부인을 대왕후로, 왕비 박씨를 왕후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이다. D-5)의 ②는 같은 해에 당으로부터 애장왕의 모와 처를 각각 大妃와 妃로 책봉받았다는 것이다. 대왕후와 왕후는 각각 대비와 비, 즉 왕후가 妃로 등치된 칭호임을 알 수 있다. ‘대왕후’는 대왕의 배우자로서 ‘왕후’의 위상이 높았던 신라적 특성이 반영된 칭호임과 동시에 성목태후의 ‘태후’ 칭호와 구분하여 지칭하기 위한 책봉호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장왕 6년(805)에는 신라왕실에 애장왕의 조모인 성목태후, 애장왕의 모인 대왕후, 애장왕의 비인 왕후와 후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성왕의 경우, 원성왕 11년(795)에 太子가 되었는데,<sup>50)</sup> 즉위 후에 별다른 혼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태자였을 때에 혼인하였을 것이다. 애장왕의 경우, D-4)에서 후궁을 들였다는 기사가 있으나, 왕후로 책봉된 박씨와의 혼인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애장왕이 13세에 즉위하였을 당시, 태자였을 때 이미 혼인 하였을 것이다.

소성왕과 애장왕은 왕손으로서 즉위하였고, D-3)과 5)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성왕 2년에, 애장왕 6년에 王后 책봉을 하였다. 소성왕과 애장왕이 즉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성왕과 애장왕의 妻는 王后가 아니었다. D-1)에서 소성왕의 처는 桂花夫人이라고 하였는데, 소성왕 2년에 왕후 책봉을 받기 이전에는 夫人의 칭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4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6년.

5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원성왕 11년.

다. 애장왕의 妻는 김씨로만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왕후 책봉을 받기 이전에는 夫人이라 일컬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하대에는 왕이 즉위하였더라도, 왕의 배우자는 별도로 冊封의 절차를 거쳐야 王后로 칭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D-3)과 5)을 보면, 왕후의 책봉의례가 정월에 행해지고 있다. 신라에서 正月, 즉 춘계의 1·2월은 상고기 이래로 중요한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관등을 임명하는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sup>51)</sup> 정월에 王后 책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왕후 책봉이 관직 임명과 같은 정기적 관행이 되었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하대에 진골귀족여성과 왕의 배우자가 夫人을 칭하였고, 왕의 배우자 중 王后 책봉을 받은 경우에만 正妃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sup>52)</sup> 이와 같은 正妃로서의 왕후의 위상은 신라 중대에 정립된 것이었다. 이는 중대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와 그에 부응하는 정치세력, 특히 왕비세력의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물이었다.<sup>53)</sup> 중대에 왕후의 책봉 제도와 그에 따른 위상이 정립되었고, 하대에 제도로써 운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왕후 책봉이 이루어진 전후의 사정을 살펴봄으로써 왕후 책봉의 조건을 알아보려고 한다.

E-1) 소성왕 2년(800), 봄 정월에 왕비 김씨를 왕후로 봉하였다. (중략) 6월에 왕자를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sup>54)</sup>

51)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2, 214~217쪽.

52) 이현주,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2015, 252~259쪽.

53)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 探究》 21, 2015, 262쪽.

54)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2년.

2) 애장왕 5년(804), 臨海殿을 重修하고 東宮 萬壽房을 새로 지었다.<sup>55)</sup>

E-1)은 소성왕 2년 6월에 태자를 책봉한 기사로, D-3)에서 같은 해 정월에 왕후 책봉 기사가 나온다. 즉 소성왕 2년 정월에 왕후를 책봉하고, 같은 해 6월에 태자를 책봉한 것이다. 또한 E-2)는 애장왕 5년에 동궁 만수방을 새로 지었다는 기사이다. 애장왕대에 태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기록의 누락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보다는 동궁 만수방의 주인인 태자에 대한 기대가 신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D-4)에서 애장왕 3년에 김주벽의 딸을 후궁으로 들였고, 5년에 동궁 만수방을 지었다. 그리고 D-5)에 의하면, 이듬해인 애장왕 6년에 대왕후와 왕후 책봉을 하였다.

이처럼 E의 사료는 태자와 왕후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태자 책봉 이전에 왕후 책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正妃인 왕후 소생의 태자에게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의도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 하대에는 왕후의 책봉이 차기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연동된 사안이었던 것이다.

### Ⅲ. 당의 신라왕대비 책봉과 의미

신라 하대에는 당의 책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당의 책봉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였다. 당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군주에게 爵號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주변국과의 君臣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의 책봉을 통해 왕권의 정통성 내지는 왕권을 유지하고자 의도하였다.<sup>56)</sup> 당의 대비·왕비 책봉은 신라 내부에서 왕권의

5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5년.

정통성이 미약할 때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당의 책봉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이 신라의 왕뿐만 아니라 왕모 및 왕비에게 빈번하게 책봉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57)</sup>

신라의 왕실여성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경우는 이미 중대의 효성왕대의 왕비책봉과 혜공왕대의 대비책봉이 있었다. 전자는 正妃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공하였고,<sup>58)</sup> 후자는 태후로서 섭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sup>59)</sup> 즉 당의 신라 왕실여성 책봉은 그 자체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중대의 경험으로 보아 당의 冊封이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기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초기에 왕부가 왕모와 왕비의 당 책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특징적이다. 당에서 인식한 일반적인 왕위계승이 부자상속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왕부의 책봉이 불필요했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왕위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왕모와 왕비의 책봉은 현왕은 물론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지위 확보와도 연관된 사안이었을 것이다. 신라는 당의 왕모 및 왕비 책봉을 통해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당의 新羅王 및 大妃·王妃 책봉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하대초기에 당이 신라의 王과 王母를 책봉한 기록이다.

56) 채미하, <신라의 賓禮－당 使臣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43, 2011, 62~66쪽.

57) 井上秀雄 역시 신라 下代 前半期에 唐에 조공하고, 왕이 당으로부터 冊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王母·王妃의 冊命도 국내의 정치적 사정에 의하여 요구하여 수여받았던 것이라 하였다(앞의 책, 1974, 360쪽).

58) 이현주, 앞의 논문, 2015, 256~261쪽.

59) 이현주, 앞의 논문, 2017, 431~434쪽.

- F-1) 元聖王 2년(786), “지금 卿에게 羅錦綾綵 등 30匹·衣 1副·銀椀 1口를 주노니, 이르거든 받으시오. 妃에게는 錦綾綾羅 등 20匹과 押金線繡羅裙衣 1副 및 銀椀 1개를 주고, 大宰相 1인에게는 衣 1副·銀椀 1개, 次宰相 2인에게는 각각 衣 1副, 銀椀 1개를 주노니, 경이 받아서 나누어 주시오.”<sup>60)</sup>
- 2) 애장왕 원년(800), 처음에 원성왕이 죽자 당나라 德宗이 司封郎中 겸 御史中丞 韋丹을 보내 부절을 가지고서 조문하고, 왕 俊邕를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新羅王으로 책봉케 하였으나, 위단이 鄆州에 이르렀다가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만 되돌아갔다.<sup>61)</sup>
- 3) 哀莊王 6년(805), 順宗이 兵部郎中 兼御史大夫 元季方을 보내어 告哀를 하였다. 또한 왕을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 大都督 雞林州諸軍事 雞林州刺史 兼持節充寧海軍使 上桂國 新羅王으로 삼고, 그 母인 叔氏를 大妃로 삼고<王母의 아버지인 叔明은 나물왕의 13세손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성은 김씨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叔氏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妻인 朴氏를 妃로 삼았다.<sup>62)</sup>
- 4) 哀莊王 9년(808), 金力奇를 보내어 당에 들어가 조공하게 하였다. 力奇가 上言하기를 “貞元 16年(800)에 詔로써 책봉하여 저희 나라의 죽은 임금인 金俊邕를 新羅王으로 삼고, 母인 申氏를 大妃로 삼고, 妻인 叔氏를 王妃로 삼았습니다. 冊使인 韋丹이 오는 도중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책봉문서가 中書省에 있습니다. 지금 臣이 還國하려하니, 엿드려 청하건대 신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申氏는 金神述의 딸인데, 神자와 음운이 같다 하여 申을 성씨로 삼은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sup>63)</sup>
- 5) 興德王 2년(827), 唐의 文宗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廢朝하였다. 太子左諭德 兼御史中丞인 源寂에게 명하여, 부절을 가지고 吊祭하게 하였다. 이어 冊立하여 왕을 잇게 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 大都督 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 新羅王으로 삼고, 母인 朴氏를 大妃로 삼고, 妻인 朴氏를 妃로 삼았다.<sup>64)</sup>

6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2年.

6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즉위조.

62)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6年.

6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9年.

사료 F는 신라 하대에 왕모가 책봉을 받았던 사례이다. 이는 신라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것과 하사품을 받았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1)에서 원성왕과 그의 왕비, 대제상과 차제상은 당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았다. 이후 경문왕도 그의 왕비와 왕태자, 대제상과 차제상이 당의 하사품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sup>65)</sup> F-3)와 4)은 애장왕대에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기록이다. F-3)는 애장왕의 왕모와 왕비가 당의 책봉을 받은 것이고, F-4)는 F-2)의 책봉문서, 즉 애장왕의 아버지인 소성왕의 왕모와 왕비가 받았던 책봉문서를 요청하여 받은 기록이다. 애장왕 이후 헌덕왕과 흥덕왕이 연이어 즉위하는데, 헌덕왕은 왕과 왕비만 당의 책봉을 받은 반면,<sup>66)</sup> F-5)에서 흥덕왕은 당으로부터 왕모와 왕비의 책봉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 하대에 王母가 당의 책봉을 받았던 시기는 소성왕 2년(800), 애장왕 6년(805), 흥덕왕 2년(827)이다.

우선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시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왕이 죽으면 당은 사신을 보내서 전왕의 죽음에 대해 ‘告哀’, 또는 ‘吊祭’를 하고, 新王을 책봉하였다. 즉 당의 新羅王 책봉은 前王의 告哀와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즉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였던 것이다. 이처럼 당의 책봉은 대부분 왕의 즉위 초에 해당하는 원년에서 3년 사이에 행해졌다. 이 시기에 당으로부터 新羅王이 책봉을 받는 것이 관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라 내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신라왕과 妻, 또는 母의 책봉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은 당으로부터 신라왕과 대비의 책봉을 받았는데, 당시의 책봉호가 新羅王과 新羅王太妃였다.<sup>67)</sup> 이로 보아 신라의 왕

64)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2年.

6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5年.

6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元年.

실여성이 당으로부터 받은 책봉호는 新羅王大妃와 新羅王妃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왕의 모인 大妃, 신라왕의 처인 妃의 의미로, 현왕과의 관계가 중심인 칭호이다.

다음으로 당으로부터 신라의 왕모까지 책봉을 받았던 소성왕, 애장왕, 흥덕왕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성왕과 헌덕왕, 흥덕왕은 원성왕의 태자였던 인검의 아들로, 同母兄弟였다. 소성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애장왕이 즉위하였다. 애장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숙부인 언승이 섭정을 하였는데, 후에 애장왕을 죽이고, 헌덕왕이 즉위를 하였다.<sup>68)</sup>

하대에 당으로부터 신라왕의 왕모가 책봉을 받은 사례는 소성왕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F-2)에서 소성왕의 죽음을 알게 된 冊使가 돌아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당으로부터 신라의 왕모가 책봉을 받은 사례는 F-3)의 애장왕대와 F-5)의 흥덕왕대이다.

그렇다면 헌덕왕대에 당의 新羅王母 책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헌덕왕이 소성왕과 동모제라는 사실을 당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F-4)에서 애장왕 9년에 소성왕과 아울러 소성왕의 母 및 妻를 책봉한 책봉문서를 당으로부터 가져왔다. 이어 당에서 예에 맞추어 애장왕의 숙부인 언승과 그 아우 仲恭 등에게 門戟을 주었다고 하였다.<sup>69)</sup> 이로 보아 당이 소성왕과 헌덕왕이 동모제이므로, 거둬 왕모를 책봉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헌덕왕이 즉위 후에 당에 왕모의 책봉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다. F-4)에서 당으로부터 받은 왕모의 책봉문서가 곧 소성

67) 《唐大詔令集》 145. “冊新羅王金建運文”, “冊新羅王太妃文”

6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즉위조, 10년.

6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9년.

왕과 헌덕왕의 모에 대한 책봉문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장왕대에 당으로부터 왕실여성이 책봉을 받은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3)은 애장왕 6년(805)에 당의 순종이 애장왕의 어머니 叔氏를 大妃로, 처 朴氏를 왕비로 책봉하였다는 기사이다. 애장왕의 모인 叔氏는 다른 기록에서는 和氏라고도 하였는데,<sup>70)</sup> 대아찬 叔明의 딸인 김씨 계화부인을 일컫는다. 동성혼을 기피하는 중국측을 고려하여 叔氏 내지 和氏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4)에서 소성왕의 어머니를 申씨라 하였는데, 소성왕 즉위조에 母는 김씨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sup>71)</sup> 소성왕 원년(799) 8월에 어머니 김씨를 성목태후로 추봉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sup>72)</sup> 김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4)의 細注에서 신씨는 김신술의 딸로, 神자와 음운이 같다하여 申을 성씨로 삼았다고 하였다.

신라 사신 김력기가 당에게 상언한 바에 따르면, 당에서는 소성왕의 모는 申씨, 처는 叔씨로 알고 있다. 이들 모두 성씨가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성의 父의 이름 첫글자를 따서 申씨와 叔씨를 성씨로 했던 것은 신라 사신 김력기의 상언에 의한 것이었다. 신라측에서 당이 기피하는 동성논란을 피하고자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3)</sup> 따라서 소성왕의 어머니는 김신술의 딸인 성목태후이고, 애장왕의 어머니는 김숙명의 딸인 계화왕후였다. 신라는 당에 왕모와 왕비의 성씨를 그 아버지의 가운데 이름자로 삼아 알렸는데, 이는 신라의 왕실혼인이 김씨 간의 동성혼이었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애장왕대에 2차례에 걸쳐 당에 신라 왕실여성의 책봉과 책

70) 《册府元龜》 卷976, 外臣部21 褒異3. “(唐)順宗 以貞元二十二[一]年 正月 丙申卽位 二月 戊辰 以新羅王金重熙母和氏爲太妃 妻朴氏爲妃”

7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즉위조.

72)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소성왕 원년.

73)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360쪽.

봉문서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애장왕은 6년(805)에 대내적으로 애장왕의 왕모와 왕비를 각각 대왕후와 왕후로 책봉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대외적으로 당으로부터 新羅王, 大妃, 王妃 책봉을 받았다. 이처럼 애장왕 6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책봉을 하였는데, 이로 보아 애장왕이 숙부인 언승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애장왕 6년에 公式 20여 조를 頒示하였는데, 이는 애장왕이 친정을 개시한 후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지배체계의 정비를 시도한 것이었다.<sup>75)</sup>

그런데 F-3)에서 대내외적으로 애장왕의 모와 처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F-4)에서 당에 신라 왕실여성의 책봉문서를 요청하여 받았다. 애장왕 9년(808)에 김력기를 통해 당이 예전에 어머니 申씨와 아내 叔氏를 대비와 왕비로 책봉하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책봉 문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당의 책봉사신이 신라에 오는 도중에 소성왕이 죽었음을 알고는 신라왕은 물론 대비와 왕비의 책봉문서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F-4)에서 요청하고 있는 책봉문서의 대상은 소성왕의 모와 처, 애장왕의 조모와 왕모인 김신술의 딸인 성목태후와 김숙명의 딸인 계화왕후이다. F-3)에서 이미 현왕인 애장왕과 현왕의 모, 처에 대한 당의 책봉이 이루어졌다. 계화왕후 역시 대내적으로 대왕후, 대외적으로 당으로부터 대비의 책봉을 받았다. 따라서 계화왕후는 당의 책봉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애장왕 9년(808)에 당에 요청한 책봉문서는 애장왕의 모인 계화왕

74)李文基,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1999, 815~816쪽;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彥昇> 《韓國 古代史研究》 34, 2004, 343~344쪽.

75)李文基, 앞의 논문, 1999, 816쪽.

후가 아닌 소성왕의 모인 성목태후를 ‘大妃’로 책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에 소성왕의 형제이자 애장왕의 숙부인 언승은<sup>76)</sup> 중공과 함께 당으로부터 門戟을 받았다.<sup>77)</sup> 소성왕의 母는 곧 언승의 母였다. 애장왕대에 당으로부터 선왕인 소성왕대 왕실여성들의 책봉문서를 새삼 요청한 것은 애장왕이 아닌 애장왕의 섭정이었던 숙부 언승의 의도였을 것이라 여겨진다.<sup>78)</sup> 언승은 당의 권위를 빌어 신라 내부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애장왕 10년(809)에 언승이 애장왕을 시해하고 헌덕왕으로 즉위하였다.<sup>79)</sup> 헌덕왕이 즉위한 후, 헌덕왕과 그의 처는 각각 당으로부터 新羅王과 王妃로 책봉받았다.<sup>80)</sup> 헌덕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사료에 따라 이견이 보인다. 《삼국사기》에서 헌덕왕이 즉위 원년(809)에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과는 달리 중국측의 기록에서는 헌덕왕 4년(812)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元和 7년(812)에 告哀와 冊封이 이루어졌다고

76) 《三國遺事》 卷1, 王曆1 헌덕왕.

7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9년.

78) 재미하는 9년에 당에게 책봉문서를 요청한 주체를 언승이 아닌 애장왕으로 보았다. 이는 애장왕이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결국 당과의 관계에서 책봉질서에 편입된 것이라 파악하였다(〈신라의 冊封儀禮와 그 기능〉 《사학연구》 127, 2017, 87~90쪽).

7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애장왕 10년.

80) 井上秀雄은 헌덕왕의 王妃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원성왕계와 周元계의 갈등, 즉 주원계의 憲昌 및 그 아들인 梵文과 원성왕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언승, 즉 헌덕왕과의 갈등으로 파악하였다. 주원은 태종무열왕계의 주류이므로, 그에 대응하여 왕실 내부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王妃의 冊命을 당에 요구하였다고 보았다(井上秀雄, 앞의 책, 1974, 359쪽). 그러나 신라왕과 아울러 王妃 책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王妃 책봉만을 따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sup>81)</sup>

또한 헌덕왕대에는 당으로부터 신라 王母의 大妃 책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덕왕의 母는 이미 소성왕 2년(800)에 대비 책봉을 받았고, 애장왕 9년에 책봉문서를 요청한 바 있었기 때문에 헌덕왕의 즉위와 관련된 대비 책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 보아 애장왕 9년의 당이 소성왕의 母와 妻를 책봉하였던 책봉문서는 언승의 권력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나아가 왕위에 오르기 위한 정지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F-5)에서 당의 문종이 흥덕왕을 책봉하면서, 어머니 박씨를 大妃로, 아내 박씨를 王妃로 책봉하였다. 흥덕왕은 헌덕왕의 동복동생(母弟)이다.<sup>82)</sup> 즉 소성왕, 헌덕왕, 그리고 흥덕왕은 모두 동복형제로, 어머니는 김씨인 성목태후였다. 그리고 흥덕왕의 아내인 장화부인은 당에서 책봉 받기 전해인 즉위 원년에 이미 죽었다.<sup>83)</sup> 그런데 F-5)에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흥덕왕의 왕모와 왕비는 모두 박씨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덕왕 즉위와 책봉 연도가 당과 신라의 기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F-5)에서는 당의 책봉을 흥덕왕 2년(827)에 받았다고 하였다.

중국측 기록에 의하면, 흥덕왕 6년(831)에 당 문종이 源寂을 신라에 보내 헌덕왕의 죽음에 조문하고 흥덕왕과 왕모, 왕비를 책봉했다고 하였다.<sup>84)</sup> 이에 대해 《삼국사기》의 기록을 불신하여 헌덕왕과 흥덕

81) 《舊唐書》卷199, 新羅傳. “(元和)七年 重興卒 入其相金彥昇爲王 遣使金昌南等來告哀 其年七月 授彥昇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 持節大都督 鷄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國王 彥昇妻貞氏册爲妃”

《新唐書》卷220, 東夷列傳149 新羅. “(元和)七年 彥昇立 來告喪 命職方圓外郎崔廷弔 且命新王以妻貞爲妃”

82) 《三國遺事》卷1, 王曆1 흥덕왕.

83)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흥덕왕 즉위조.

왕의 죽음을 830년으로 보기도 하였다.<sup>85)</sup> 그러나 흥덕왕의 즉위는 826년이었고, 당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조문과 책봉한 시점이 831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삼국사기》에 당의 책봉 사실이 흥덕왕 6년(831년)이 아닌 흥덕왕 2년(827)에 실린 이유는 《삼국사기》 편찬시의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흥덕왕의 실제 즉위년도와 당이 왕의 즉위를 인식한 연도가 달랐다. 이는 헌덕왕과 흥덕왕이 형제관계였음을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았던 신라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이 신라의 왕과 왕모,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왕과 현왕과의 사이를 부자관계로 인식했고, 현왕을 기준으로 그의 왕모와 왕비를 책봉하였다. 당이 신라의 새 왕인 흥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면서 아울러 大妃와 王妃 책봉을 했던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즉 신라는 관례상 즉위 직후, 당으로부터 흥덕왕과 그의 모와 비의 책봉을 받았고, 중국의 동성불혼의 관습에 따라 왕모와 왕비 모두 朴氏로 알렸던 것이다. 흥덕왕의 모와 처가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박씨라고 한 것은 신라측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신라에서는 동성혼을 숨기기 위해서였다.<sup>86)</sup> 또한 당이 헌덕왕과 흥덕왕을 형제관계가 아닌 부자관계로 인식했고, 이 역시 신라에서 의도한 결과였던 것이다.

신라의 하대초기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하였고, 따라서 즉위한 新王은 왕위의 정통성을 입증해야 할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84) 《舊唐書》 卷199, 東夷列傳149 新羅. “(大和)五年 金彥昇卒 以嗣子金景徽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 景徽母朴氏爲太妃 妻朴氏爲妃 命太子左諭德·兼御史中丞源寂持節弔祭册立”

85) 末松保和, <新羅下古薨年存疑>, 앞의 책, 1954, 427~428쪽.

86) 李丙燾, 앞의 책, 1977, 204쪽.

없었다. 하대에 왕이 즉위한 직후에 관례적으로 父母를 추봉하였던 것은 왕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父系가 동일할 경우,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는 母系의 위상과 정치세력이 중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父系와 母系가 동일할 경우, 왕위의 정통성을 차별화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왕위쟁탈전이 극심해짐에 따라 왕위계승의 당위성을 부각해야만 했고,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당의 책봉은 더욱 중요시 되었을 것이다. 신라에서 왕은 물론 王母와 王妃까지 唐의 冊命을 요구한 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의 冊命이라는 권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sup>87)</sup> 이것이 헌덕왕과 흥덕왕이 당으로부터 王母의 책봉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였다. 당이 신라왕의 母를 책봉한 시기는 소성왕, 애장왕, 흥덕왕에 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의 왕모 책봉이 필요한 왕은 소성왕,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이었다. 헌덕왕은 애장왕 9년에 소성왕의 모인 성목태후의 대비 책봉문서를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원성왕과 애장왕은 五廟制를 직계 4祖로 개편함으로써 부계의 수직적 계통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원성왕의 태자인 인겸의 아들인 소성왕, 헌덕왕, 흥덕왕, 그리고 소성왕의 아들인 애장왕은 동일한 부계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父系적 지지기반이 동일할 때, 왕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母系 역시 필요하였던 것이다.

헌덕왕은 애장왕과 부계적 지지기반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모계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밖에 없었고, 당의 대비 책봉문서를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왕위의 명분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의 하대

87)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358쪽.

초기에는 왕위의 정당성이 부족하였다. 신라왕실은 왕권의 정통성을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부모를 追封하여 왕실 직계의 위상을 높였고, 외부적으로는 당으로부터 신라왕모의 大妃 책봉을 받아 차별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 IV. 맺음말

신라 하대초기(선덕왕~현안왕)는 선덕왕에 이어 원성왕이 즉위한 후에 원성왕계의 독점적인 왕위계승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원성왕계 사이의 왕위쟁탈전도 격심했던 시기이다. 그 중에서도 회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는 836년부터 839년까지는 왕위쟁탈전이 특히 격심하였다. 이들은 모두 원성왕계 후손으로, 이러한 왕위계승분쟁의 시발점은 원성왕대였다. 본 논문에서는 하대 초기의 왕위계승 양상과 왕실일원의 존재양상을 알기 위하여 하대 초기, 그 중에서도 원성왕대부터 흥덕왕에 이르는 시기를 왕실여성의 책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성왕은 즉위 직후에 그의 직계 4조와 그의 모인 박씨를 추봉하고, 왕태자를 책봉하였다. 또한 五廟制를 개정하였다. 원성왕이 왕위의 정당성을 부계적 정통성을 천명함으로써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성왕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지지세력으로 그의 어머니와 왕비의 친척인 김원량-김신술의 가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왕의 어머니와 부인에 대한 기록이 과편화되거나 멸실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성왕이 부계적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하대왕후의 위상과도 연관되었다. 하대 초기의 왕후 책봉은

태자 책봉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正妃가 낳은 태자에게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라 하대의 왕후책봉과 위상은 차기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연동된 사안이었다.

또한 신라 하대초기에는 당이 신라의 왕실여성을 책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신라 하대초기에 王母가 당의 책봉을 받았던 시기는 소성왕 2년(800), 애장왕 6년(805), 흥덕왕 2년(827)이다. 또한 애장왕 9년(808)에 소성왕의 모와 처의 책봉문서를 당에 요청하여 받았다. 또한 헌덕왕은 당으로부터 신라왕과 신라왕비의 책봉만 받았고, 왕모의 대비 책봉을 받지 않았다. 이는 헌덕왕이 808년에 이미 소성왕의 모이자 헌덕왕, 흥덕왕의 모인 성목태후가 당으로부터 ‘대비’ 책봉문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하대 초기의 원성왕계는 왕위의 정당성이 부족하였는데, 왕권의 정당성과 왕위의 정통성을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五廟制를 직계 4祖로 개편함으로써 부계의 수직적 계통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당의 책봉을 받아서 왕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소성왕,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은 원성왕 직계 중에서 인검계이다. 이들은 원성왕의 직계로서 부계상의 차별성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母와 妻의 지위를 통해 그들의 왕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즉 父系적 지지기반이 동일할 때, 왕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母系 역시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의 하대초기에는 왕위의 정당성이 부족하였기에 이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신라왕실은 내부적으로는 父母를 追封하여 왕실 직계의 위상을 높였고, 외부적으로는 당의 王母 책봉을 받아서 차별화하였다.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 《冊府元龜》 《唐大詔令集》  
 《舊唐書》 《新唐書》 <大崇福寺碑銘并序> <葛項寺石塔記>  
 崔英成, 《註解 崔致遠全集》, 亞細亞文化社, 1998.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1992.

### 2. 저서

- 권영오, 《新羅 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김복순,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1990.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2.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의 研究》, 一志社, 1977.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이기백, 《신라정치사연구》, 일조각, 1974.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李丙燾,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이영호, 《신라 중대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 3. 논문

- 姜聲媛, <新羅時代 反逆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43, 1983.  
 金敬愛,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王室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41, 2006.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한국사연구》 39, 1982.
- 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1984.
- 金昌謙,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金周元系の 動向> 《阜村申延澈教授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1995.
- 김진국, <신라하대 해인사와 왕실>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상현, <9세기 후반 해인사와 신라왕실의 후원> 《신라문화》 28, 2006.
-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 申澐植, <新羅史의 時代區分-三國史記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18, 1977.
- 이기백,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 吳星,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 尹炳喜, <신라 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역사학보》 96, 1982.
- 李文基,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 改革의 政治的 意味> 《白山學報》 52, 1999.
- 李明植, <신라 하대 김주원계의 정치적 입장> 《대구사학》 26, 1984.
- 이영호, <신라 해공왕대 정변의 새로운 해석> 《역사교육논집》 13·14, 1990.
- 이영호, <신라 해공왕 12년 관호복구의 의미> 《대구사학》 39, 1991.
- 이영호, <신라 왕권과 귀족사회> 《신라문화》 22, 2003.
- 이현주,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2015.
-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해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韓國古代史探究》 21, 2015.
- 이현주,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해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2017.
- 장일규, <《삼국유사》 왕력편·기이편의 신라 하대 기사와 하대상> 《新羅史學報》 30, 2014.
- 정선용, <신라 애장왕대 해인사 창건과 왕실세력의 동향>, 한국고대탐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2017.12).
- 주보돈, <통일신라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 채미하,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韓國史研究》 108, 2000.
- 채미하, <신라의 賓禮-당 使臣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43, 2011.

- 채미하, <신라의 冊封儀禮와 그 기능> 《사학연구》 127, 2017.
- 최원식, <신라 하대의 해인사와 화엄종> 《한국사연구》 49, 1985.
-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の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濱田耕策, <新羅の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確立過程と性格> 《朝鮮學報》 176·177, 2000.

ABSTRACT

## A Study on the Investiture of the Royal Women in the Early Part of the Late Period of Shilla Dynasty

Lee, Hyun-ju

The late period of Shilla refers to the period from King Seonduk(宣德王) to King Kyungsoon(敬順王). This period can be divided into early, middle and late parts, depending on the royal lineage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the early part, after King Wonseong(元聖王) succeeded King Seonduk the exclusive succession was made by lineage of King Wonseong. On the other hand, a struggle for the throne was intensified between lineage of King Wonseong in this part. Thus,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was particularly confusing and the status of royal women was not stable as well.

Immediately after King Wonseong's enthronement, he gave posthumous honor to his four forebears of direct descendent and installed the crown prince. He also revised Five -Temple System(五廟制). He tried to find justification of the throne by clarifying the patrilineal legitimacy. His supporters who helped him to ascend the throne were his mother and Kim Wonryang and Kim Sinsul's family who were queen's relative. This was the reason why the crown prince In gyeommarried

Kim Sinsul's daughter. Never the less, there cord of King Won seong's mother and his wife was fragmented or lost because he wanted to justify the royal authority by emphasizing patrilineal legitimacy.

This was also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queen in the late period. In the early part of the late period, the investiture of the queen was made before that of the crown king for giving justification to the crown king who was born by the first queen(正妃). The investiture and status of the queen in the late period of Shilla were connected with the crown king who was successor to the next throne.

Another special feature of this period was the frequent investiture of the royal women by Tang dynasty. Tang's investiture was basically political act. From their standpoint, this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ng dynasty and surrounding countries as a king and subject by conferring title to the sovereigns of surrounding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Shilla, investiture was intend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royal power and maintain royal authority. The frequent investiture of the king's mother and queen as well as king of Shilla by Tang dynasty was due to this condition.

Only King Hyoseong(孝成王)'s queen and King Hyeogong(惠恭王)'s queen mother in the middle period were the cases of Tang's investiture of the royal women in Shilla. The first case provided justification to establish status as a first queen. The second case provided political justification to queen mother for acting as a regent. In other words, Tang's investiture of royal women in Shilla was itself used as a political act for securing legitimacy. Through their experience in the middle period, Shilla knew that Tang's investiture could be used as a mechanism

to guarantee the legitimacy.

In terms of succession to the throne, investiture of king's mother and queen were related to the secure of the status of present king and the successor to the next throne. Shilla seek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ang's investiture of king's mother and queen.

Only King Soseong(昭聖王), Aejang(哀莊王), Heondeok(憲德王) and Heungdeok(興德王) obtained investiture of king's mother from Tang dynasty. King Wonseong and Aejang revised Five -Temple System(五廟制) into four forebears, so they could establish vertical lineage of paternal line. However, the mother of King Soseong, who is a grandson of King Wonseong, King Heondeok and Heungdeok is identical. King Aejang who is the son of King Soseong has different mother. King Heondeon and Heungdeok killed their nephew King Aejang and ascended to the throne. This means all four kings are lineage of King Wonseong and have a same patrilineal support base. Therefore, King Heondeok and Heungdeok needed status of king's mother who obtained Tang's investiture as well as patrilineal legitimacy for the legitimacy of royal power.

The lineage of King Wonseong was short of the legitimacy of the throne in the early part of the late period of Shilla. In order to fill this shortage, internally they gave posthumous honor to their parents to raise the status of royal family and secure the patrilineal legitimacy, and externally they tried to justify the legitimacy by Tang's investiture of king's mother.

Key Words : King Wonseong, King Aejang, Five-Temple System, Investiture, queen,  
Empress Dowager

논문 투고일 : 2018. 3. 24. 심사 완료일 : 2018. 4. 2. 게재 확정일 : 2018. 4. 4.